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12.(화) 12:00

배포일시 2017. 12. 12.(화) 09: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통계분석실



통계청

실 장: 김경용(042-366-7201)
 사 무 관: 이주희(042-366-7210)
 주 무 관: 조은숙(042-366-7211)

한국의 사회동향 2017 (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17.12.12.)와 「소득과 소비·노동·주거와 교통·환경·안전·사회통합」(17.12.17.)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공표할 예정입니다.
- 각 영역은 해당 영역별 '주요 동향'과 주요 이슈에 관한 2편의 '주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 선정 시 영역별 전문가(부처, 학계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주요 동향'과 '주제 논문'은 영역별 집필진(부록 참조)이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에 공표시점에 게시합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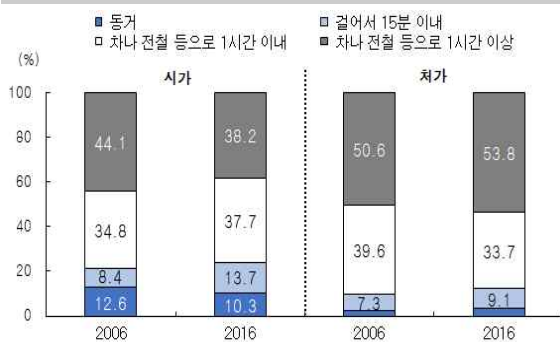
| | |
|------------------------------------|----|
| □ 요약 | 1 |
| □ 주요 영역별 사회동향 | |
| 1. 가족과 가구 | |
| 가.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 5 |
| 나.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 7 |
| 2. 인구 | |
| 가.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 8 |
| 3. 건강 | |
| 가.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 10 |
| 4. 교육 | |
| 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 12 |
| 나. 대학교육의 성과 | 14 |
| 5. 문화와 여가 | |
| 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 15 |
| 나. 생애주기별 여가 | 17 |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요약]

동거 여부나 거주지 선택에 있어 여전히 시가 중심적인 경향이 있으나 맞벌이인 경우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시가보다 처가에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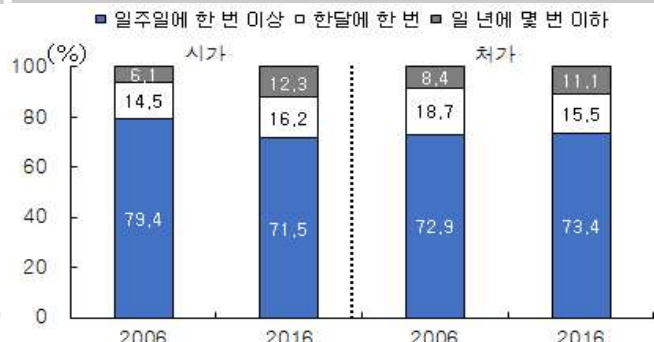
-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 거주 비율이 시가, 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거주지 선택에 있어 시가 중심적인 경향이 있음
- 1주일에 한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시가 2006년 79.4%에서 2016년 71.5%로 감소하면서 처가 73.4%보다 적어짐

양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는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함.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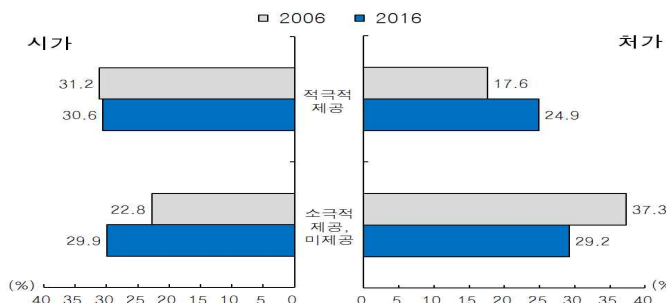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 노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처가 (24.9%)보다 시가(30.6%)가 더 많으나 그 차이가 지난 10년 전보다 크게 줄었음
- 맞벌이의 경우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시가에서는 감소한 반면 처가에서는 증가함

* 도구적 지원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 돌봐주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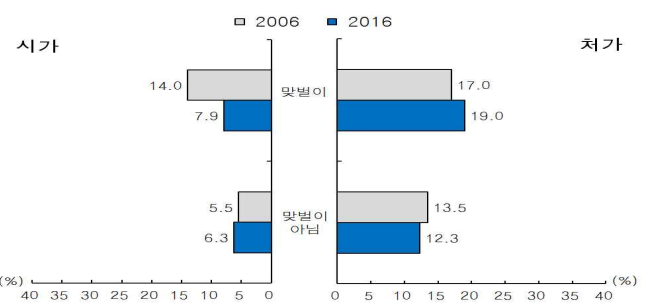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2) '적극적 제공'은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틀이고, '소극적 제공, 미제공'은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와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틀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맞벌이 여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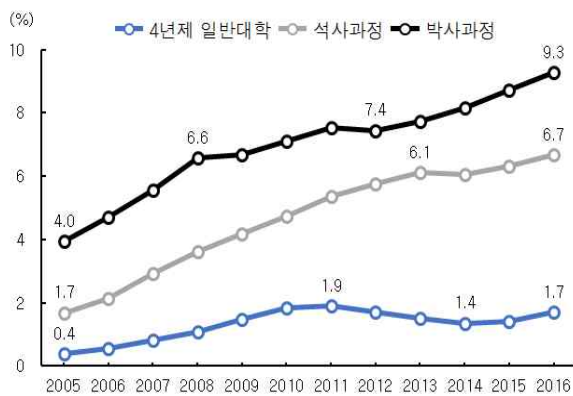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2)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틀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6년 10만 명을 넘었으며 학위과정에서 출신국은 아시아권 중 중국, 지역은 서울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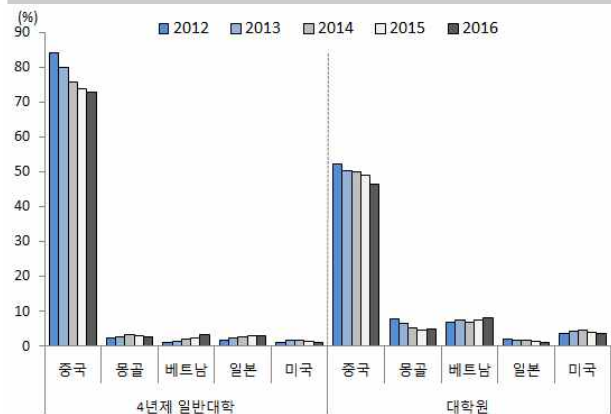
-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6년 10만 명을 넘었고 학위과정이 60.5%이며, 4년제 대학 전체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7%로 미미한데 비해 대학원 석사 6.7%, 박사 9.3%로 꾸준히 높아짐
- 대학원보다 4년제에서 중국 출신 유학생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출신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2005-2016



주: 1)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생(학사, 석사, 박사) 대상임
2) 박사과정에는 석·박사통합과정도 포함됨.
3) 해당 학위과정 전체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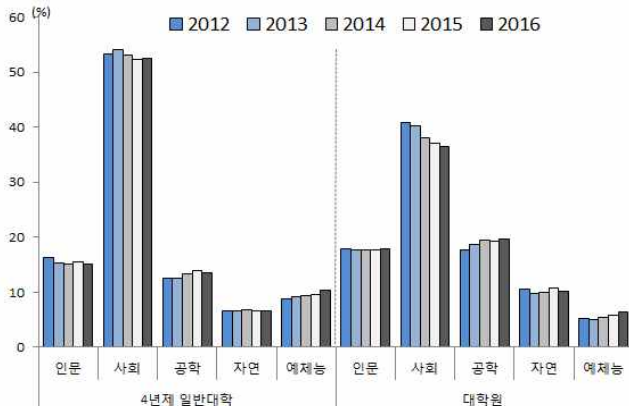
출신국가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비율,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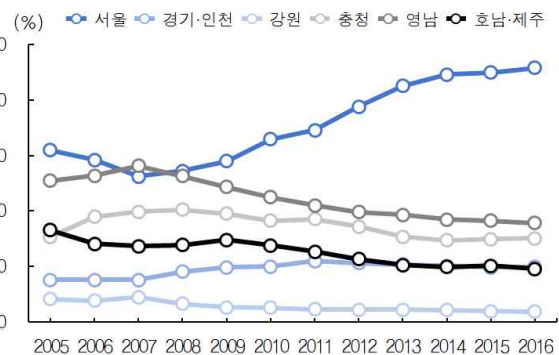
- 4년제 대학에서 사회계열 전공이 2016년 대학 5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문계열 15.2%, 공학계열 13.6%, 예체능계열 10.4% 순임
-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서 타 지역이 감소세나 정체세를 보이는데 반해 서울은 2005년 31%에서 2016년 45.8%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전공계열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구성비율,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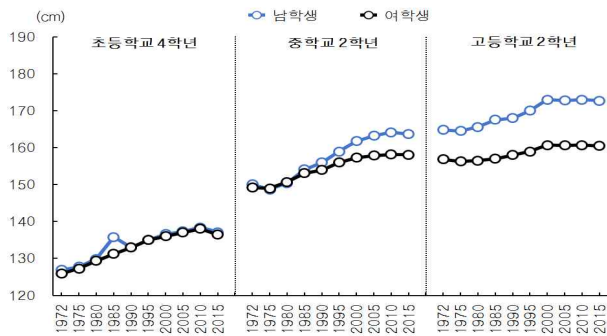


주: 1)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임.
2) 충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을 포함, 영남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을 포함, 호남·제주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청소년의 체격은 향상되고 있으나, 건강상태에서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면 부족과 높은 우울감경험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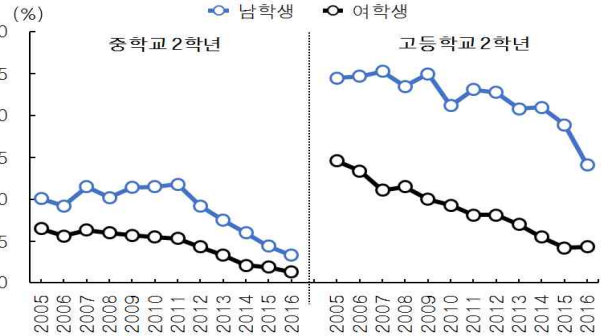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남녀 간 신체적 차이가 과거보다 일찍 발생하며 크게 벌어짐
- 청소년들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조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키, 1972-2015



주: 1) 연령 기준으로 집계된 표본조사 결과임.
2) 초등학교 4학년생은 만 9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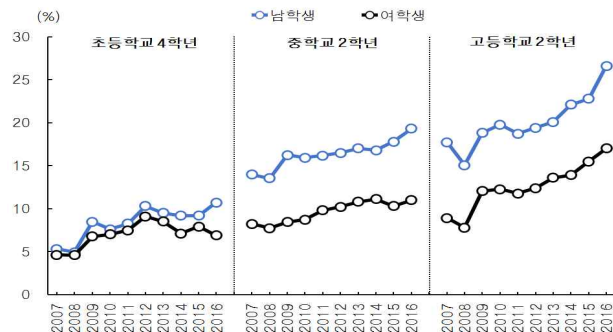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의 성별 흡연율, 2005-2016



주: 1)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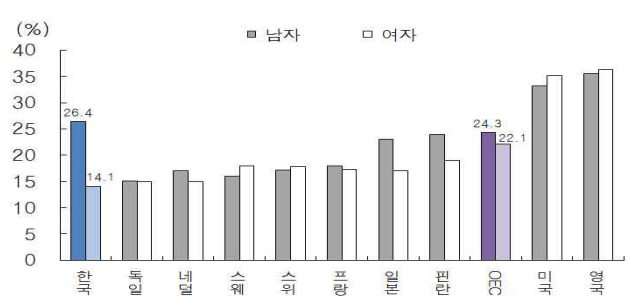
-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높음

조중고 학생의 성별 비만율, 2007-2016



주: 1)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측정된 학생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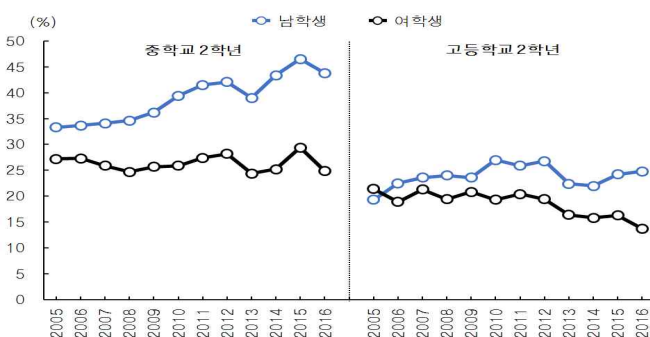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의 청소년 비만율, 2013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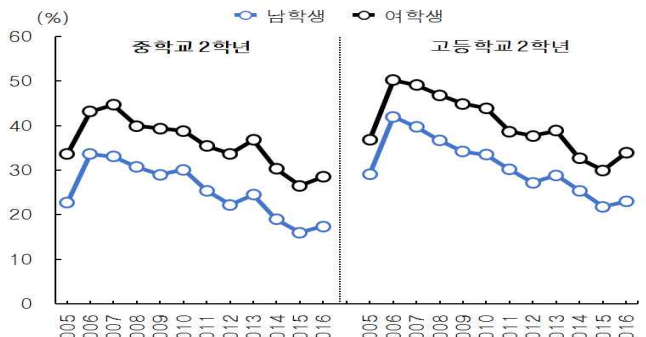
-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수면충족률과 높은 우울감경험률을 보이며, 특히 2016년 고2여학생의 우울감경험률은 33.9%로 높은 수준임

중고등학생의 성별 수면충족률, 2005-2016



주: 1) 수면충족률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에 피로회복에 '매우 충분' 또는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중고등학생의 성별 우울감경험률,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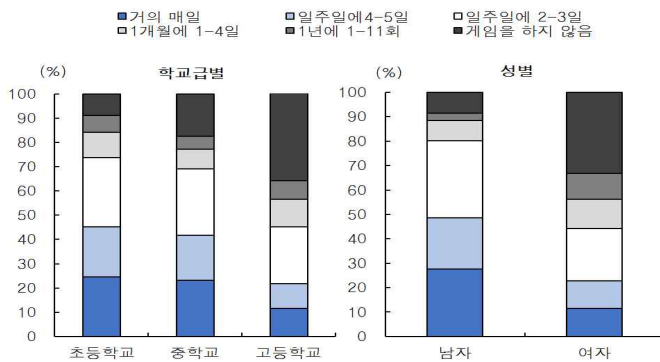


주: 우울감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청소년 중 게임에 과몰입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게임을 일찍 시작한 중학생이 과몰입군이나 과몰입위험군에 속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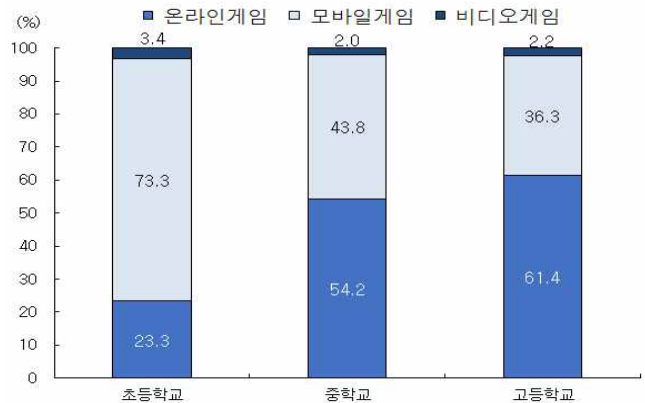
- 초등학생(4~6학년)의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 성별로는 남학생의 91.4%와 여학생의 66.7%가 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음
-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바일게임을, 학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게임을 많이 함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 게임 이용 빈도, 2016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청소년의 학교급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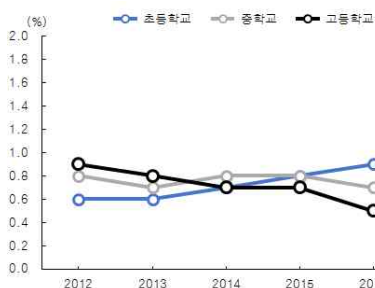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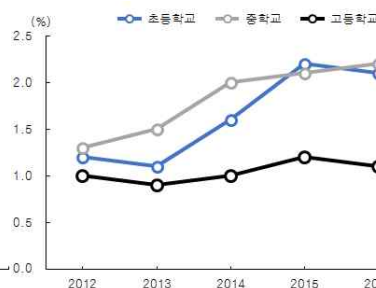
- 청소년 응답자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각각 0.7%와 1.8%임

청소년의 학교급별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및 게임선용군 비율,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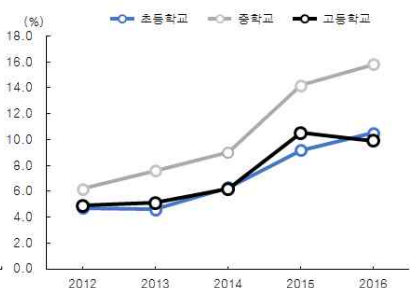
1) 과몰입군



2) 과몰입위험군



3) 게임선용군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3)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는 게임 이용자를 게임선용(생활 경험 확장, 여가선용, 자긍심·통제력 경험 등)과 문제적 게임이용(조절 손상, 일상생활 무시, 과도한 시간 소비, 금단 등)과 같은 행동유형에 따라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일반사용자군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각 연도.

- 게임을 일찍 시작한 중학생이 과몰입군 또는 과몰입위험군에 속한 비율이 대체로 높음

중학생의 게임 시작시기별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 2016



주: 1) 전국 중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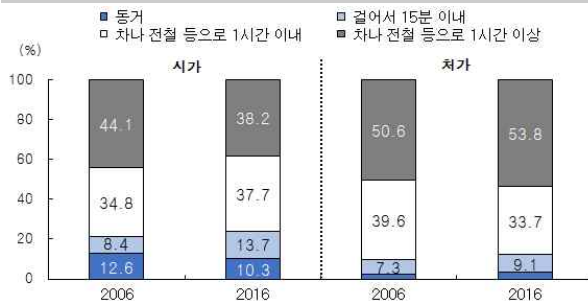
1. 가족과 가구

가.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동거 여부나 거주지 선택에 있어 여전히 시가 중심적인 경향이 있으나 맞벌이인 경우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시가보다 처가에서 증가함

-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 거주 비율이 2006년 시가 8.4%, 처가 7.3%에서 2016년 13.7%, 9.1%로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거주지 선택에 있어 시가 중심적인 경향이 있음
- 1주일에 한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시가 2006년 79.4%에서 2016년 71.5%로 감소하면서 처가 73.4%보다 적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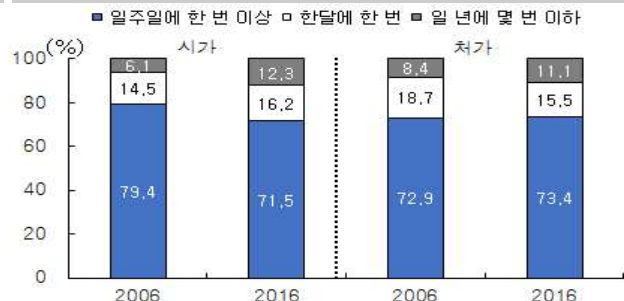
양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 2006, 2016



-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는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옆집, 같은 건물 또는 집근처', '걸어서 15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15-30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30분-1시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1-3시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3시간 이상 거리', '해외거주' 등 8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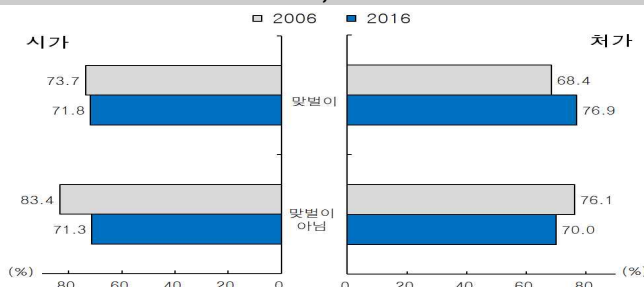


-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몇 번', '일 년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미만'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 맞벌이의 경우 부모와 자주 연락하거나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시가는 감소한 반면 처가는 증가함

* 도구적 지원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 돌봐주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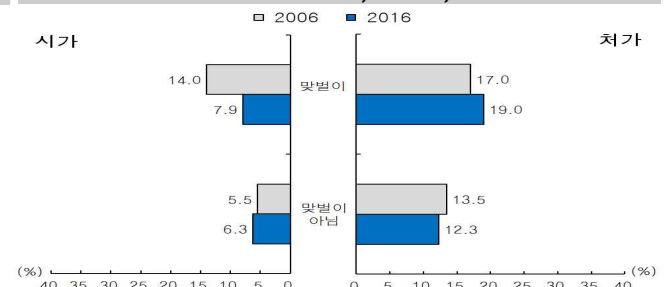
맞벌이 여부별 양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맞벌이 여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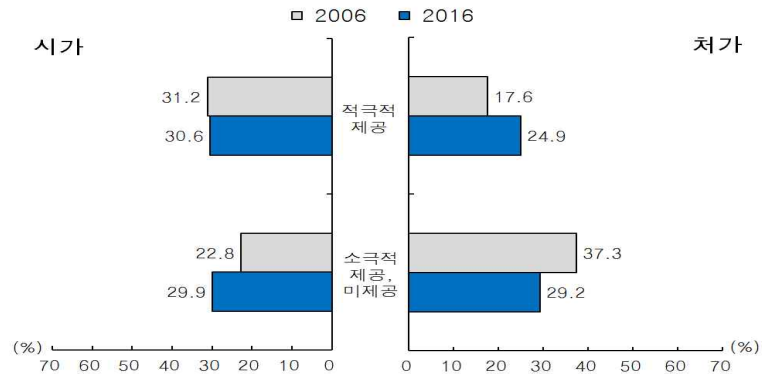


- 주: 1)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2)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 양가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처가(24.9%)보다 시가(30.6%)가 5.7%p 더 높으나, 그 차이는 10년 전 13.6%p(처가 17.6%, 시가 31.2%)보다 크게 줄었음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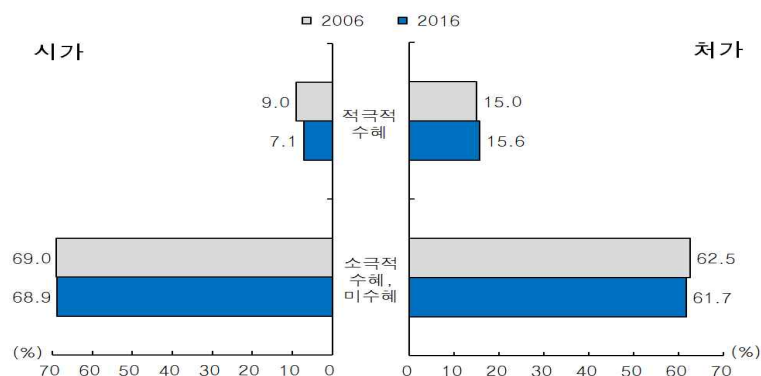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 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2) '적극적 제공'은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틀이고, '소극적 제공,미제공'은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와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틀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 시가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은 감소하여 2016년 현재 처가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는 비율(15.6%)이 시가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는 비율(7.1%)의 두 배를 넘음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서 처가 부모의 도움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양가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2) '적극적 수혜'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틀이고, '소극적 수혜,미수혜'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와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틀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나.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취업모 가구는 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비취업모 가구는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이 크게 높았으며 한국의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OECD평균보다 높음

- 2012년에 비해 2015년 취업모 가구는 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비취업모 가구는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이 크게 증가됨

* 2013년 유아(3~5세) 대상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영유아(0~5세) 가구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취업모의 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45.9%에서 2015년 66.5%로 높아졌고 비취업모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2012년 6%에서 2015년 39.2%로 증가함
-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23.3%만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음
 -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중 86.8%가 1,2학년 학생임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2, 2015

|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어린이집 (%) | | 유치원 (유아) |
|-------|-----------------|----------|------|-------------|
| | | 영아 | 유아 | |
| 2012년 | | | | |
| 취업 | 0.8 | 72.2 | 45.9 | 47.7 |
| 비취업 | 6.0 | 39.7 | 39.6 | 49.0 |
| 2015년 | | | | |
| 취업 | 14.9 | 78.5 | 66.5 | 41.7 |
| 상용직 | 17.1 | 75.5 | 66.5 | 37.0 |
| 일용직 | 2.1 | 96.1 | 66.9 | 50.0 |
| 휴직 | 62.0 | 43.0 | 53.6 | 42.1 |
| 비취업 | 39.2 | 52.3 | 58.6 | 44.6 |

주: 1) 영아 및 유아의 대상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으로 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 영유아는 0~5세임.
2)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되는 경우에 이용률이 중복 계산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12.;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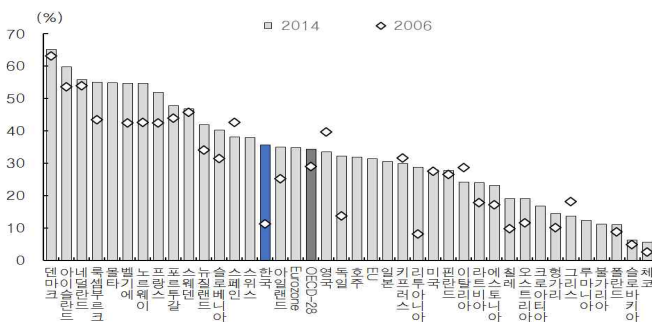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와 비율, 2016



주: 1) 참여율=(해당 학년 참여학생수÷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100.
출처: 교육부,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2017, 「2016년 교육통계연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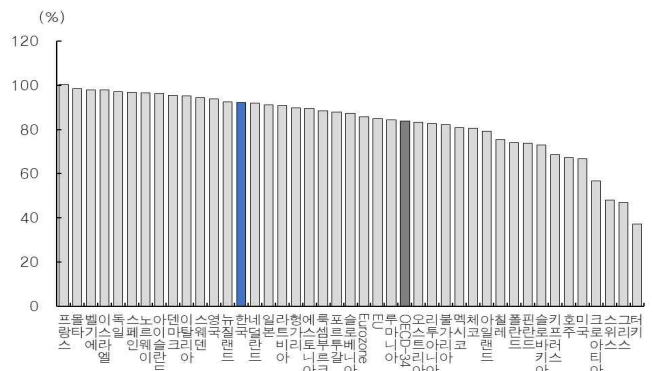
- 한국의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에는 영아 11.2%로 OECD 평균(29%)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4년에는 35.7%로 OECD 평균(34.4%)을 상회함
 - 유아의 경우도 2014년 92.2%로 OECD 평균(83.8%)을 상회함

OECD 및 EU 국가의 영아(0-2세)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 2006, 2014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및 EU 국가의 유아(3-5세)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 2014



2. 인구

가.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외국인 거주자의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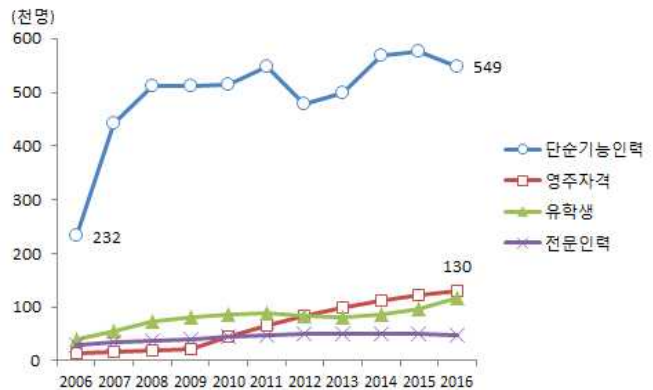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섬
- 규모로는 단순기능인력이, 증가율로는 영주자격 외국인이 높음

체류외국인 수, 1998-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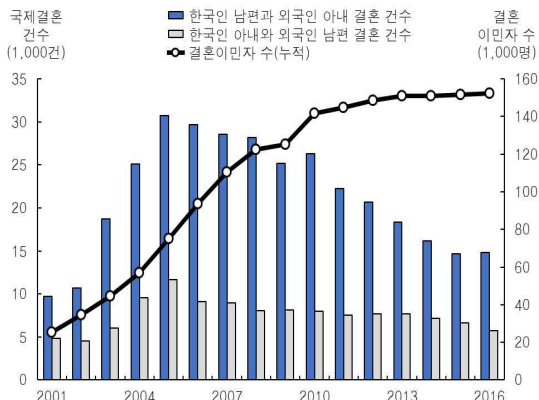


주: 1) 유학생은 유학(D-2), 외국어연수(D-47), 한국어연수(2009년 이전 D-44, 2010년 이후 D-41) 등을 포함함.
2)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등을 포함함.
3) 단순기능인력은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을 포함함. 연수취업은 2009년까지 해당됨.
4) 영주자격은 영주권(F-5) 비자를 포함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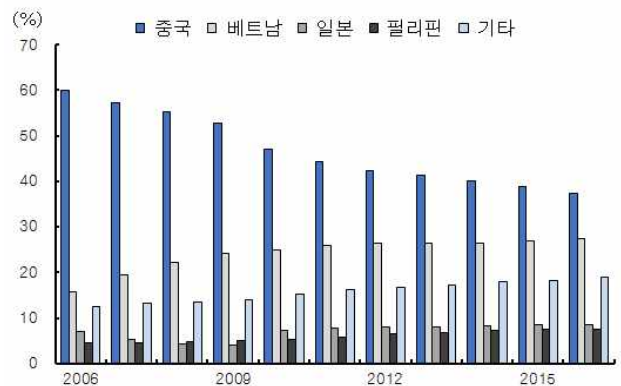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2001년 2만 5,182명에서 2016년 15만 2,374명으로 지난 15년 동안 약 6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국제결혼의 감소로 증가 속도는 급격히 낮아짐
- 전체 결혼이민자 중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0%에서 2016년 37.4%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출신은 꾸준히 늘어나 27.4%임

국제결혼 건수와 결혼이민자 수, 2001-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비율,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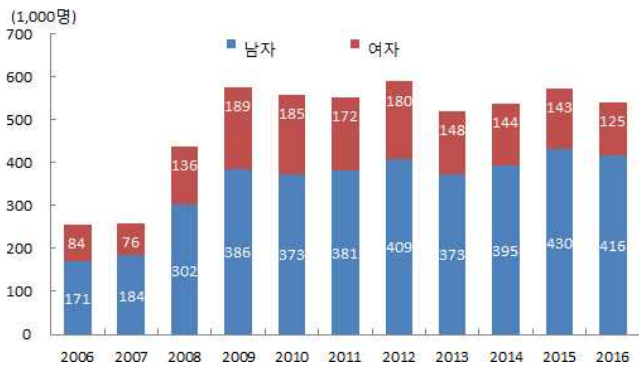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현재 54만 2천 명으로 이중 남자가 76.9%임
 -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됨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제조업에 종사함. 최근에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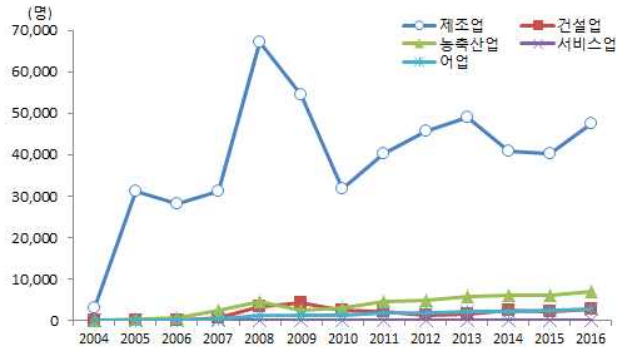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국적을 지니지 않고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성별 외국인 근로자 수, 2006-2016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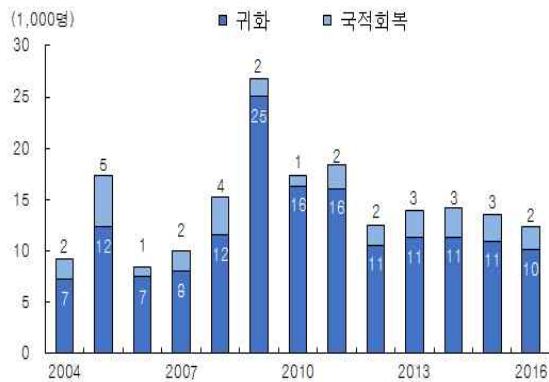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 2004-201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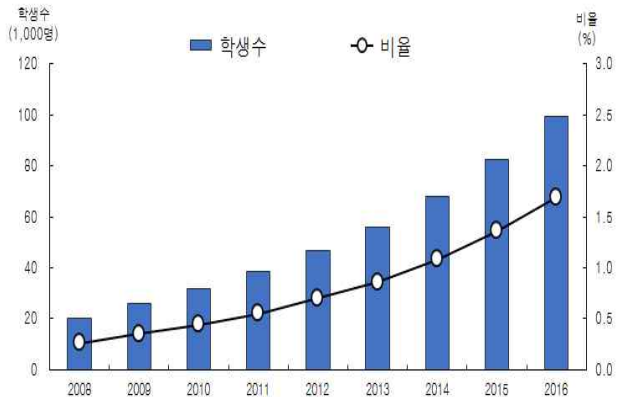
- 국적취득자의 80%이상이 귀화자에 해당됨
 - 2009년에 가장 많은 2만 5천 명이 귀화, 2016년 현재는 1만 명 수준
-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학생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8년 2만 명에서 2016년 9만 9천 명으로 약 5배로 증가함.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 중에서 2016년 1.7%임

국적취득자 수, 2004-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08-2016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2)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 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3.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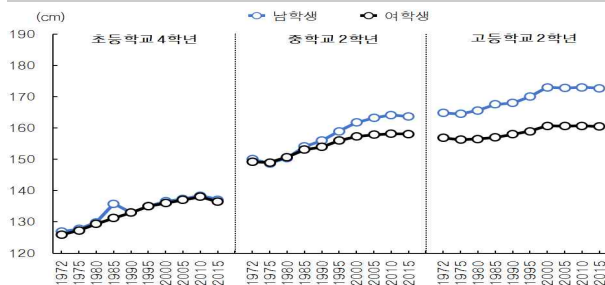
가.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청소년의 체격은 향상되고 흡연이나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만도는 높아지고 채소섭취와 수면은 부족함, 스트레스와 우울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2남학생과 고2남학생의 증가율이 중2여학생과 고2여학생에 비해 높음
- 남녀간 신체적 차이가 과거보다 일찍 발생하며 크게 벌어짐

초·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키, 197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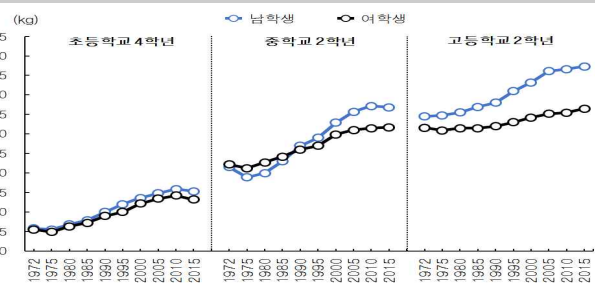


주: 1) 연령 기준으로 집계된 표본조사 결과임.

2) 초등학교 4학년생은 만 9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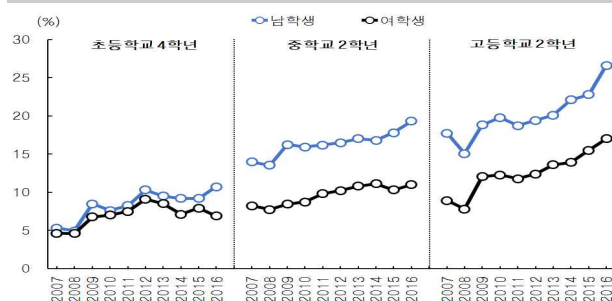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초·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체중, 1972-2015



○ 비만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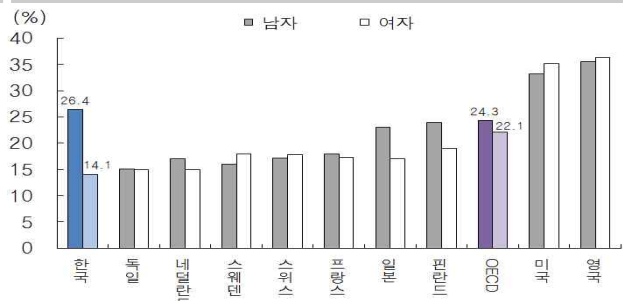
초·중고 학생의 성별 비만율, 2007-2016



주: 1)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측정된 학생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 「학생 건강검진 결과 발표」, 보도자료, 각 연도

OECD 주요 국가의 청소년 비만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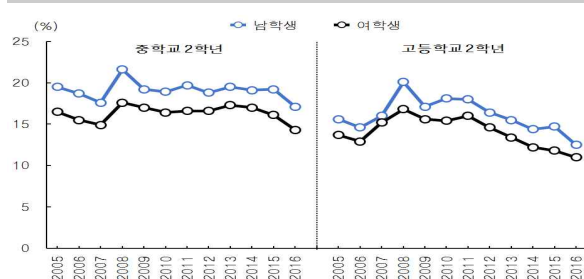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2015.

○ 고2학생의 채소섭취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고2여학생이 11%로 매우 낮음

○ 반면, 탄산음료 섭취율은 중고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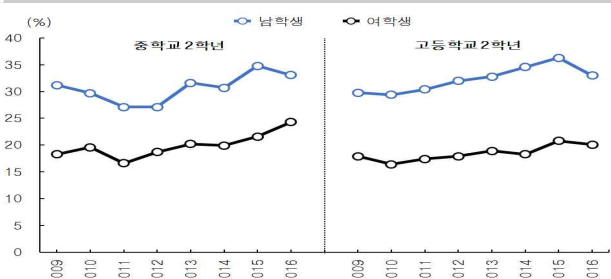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별 채소섭취율, 2005-2016



주: 1) 최근 7일 동안 1일 3회 이상 채소반찬(김치 제외)을 먹은 사람 비율임. 2)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먹은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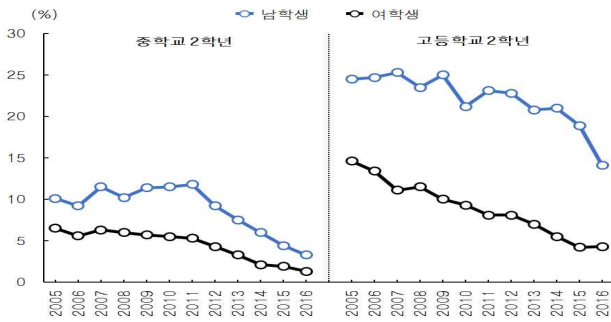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별 탄산음료섭취율, 2009-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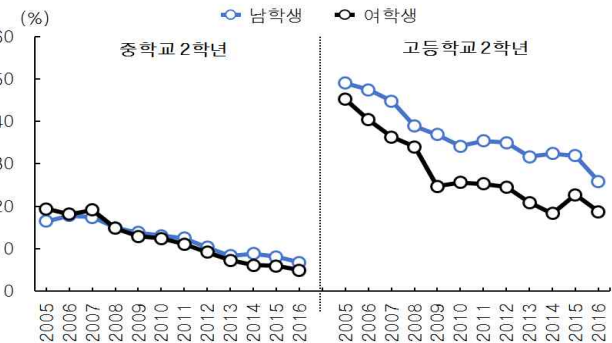


-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중고생 흡연율이 2005년 11.8%에서 2016년 6.3%로 감소
 - 고2남학생 음주율은 2005년 49%에서 2016년 25.9로 감소하였고, 고2여학생도 2005년 45.2%에서 2016년 18.7%로 감소함

중고대학생의 성별 흡연율,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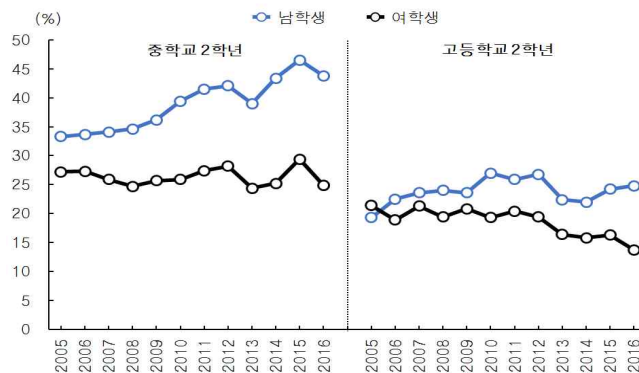
중고대학생의 성별 음주율, 2005-2016



주: 1)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2)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 수면충족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으며, 중2남학생이 2005년 33.3%에서 2016년 43.8%로 증가한데 비해 고2여학생은 21.4%에서 13.7%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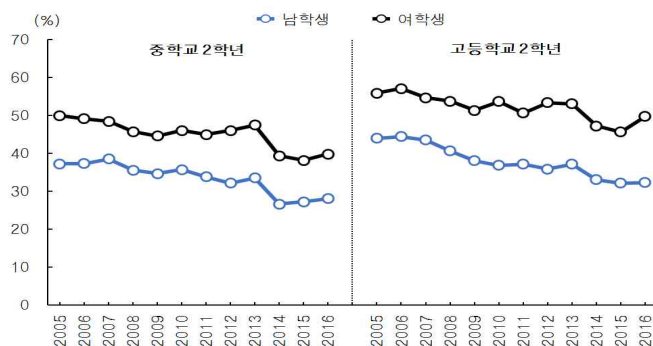
중고대학생의 성별 수면충족률,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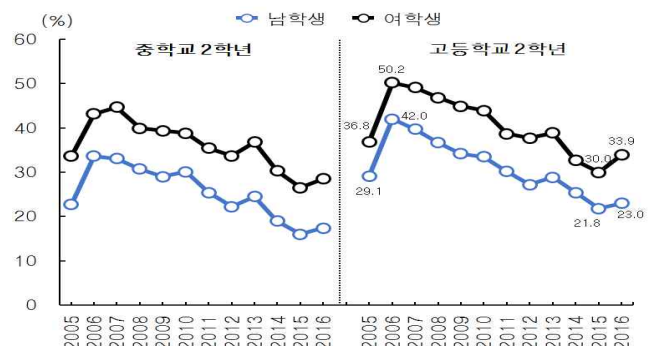
주: 1) 수면충족률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매우 충분' 또는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 스트레스인지율이나 우울감경험률 모두 낮아지고 있으나, 2016년 고2 여학생의 스트레스인지율이 49.8%, 우울감경험율이 33.9%로 아직도 높은 수준임

중고대학생의 성별 스트레스인지율, 2005-2016



중고대학생의 성별 우울감경험률, 2005-2016



주: 1) 평상시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임.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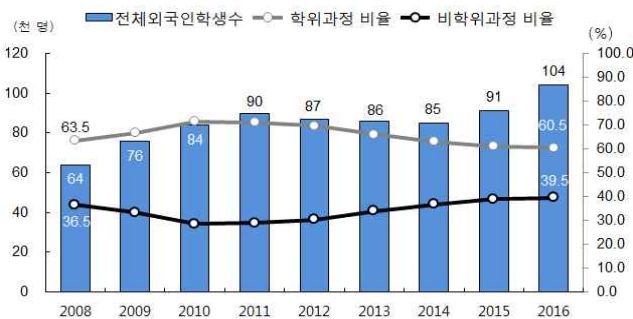
5. 교육

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6년 10만 명을 넘었으며 학위과정에서 출신국은 아시아권 중 중국, 지역은 서울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6년 10만 명을 넘었으며 학위과정이 2016년 60.5%, 비학위과정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6년 39.5%임
-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자체는 3만5,753명으로 늘어났지만 4년제 대학 전체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7%로 미미한데 비해 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 6.7%, 박사과정 9.3%로 꾸준히 높아짐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2008-2016



주: 1)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위과정생(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 비학위과정생(어학연수,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을 모두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간주된 교육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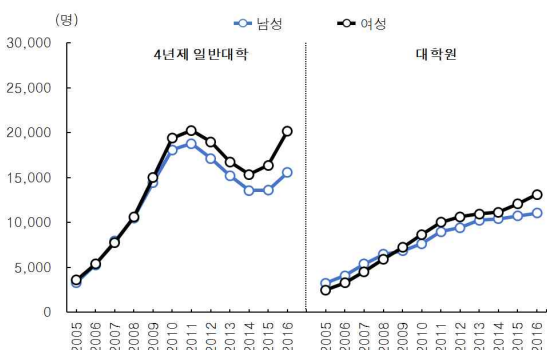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2005-2016



주: 1)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생(학사, 석사, 박사) 대상임
2) 박사과정에는 석·박사통합과정도 포함됨.
3) 해당 학위과정 전체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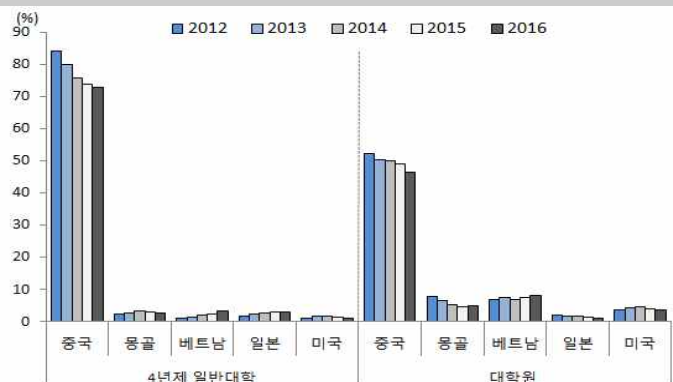
- 4년제 대학과 대학원 학위과정을 합한 유학생의 남녀 비율을 보면 2008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09년부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져 2016년에는 여학생이 56%로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음
-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출신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성별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05-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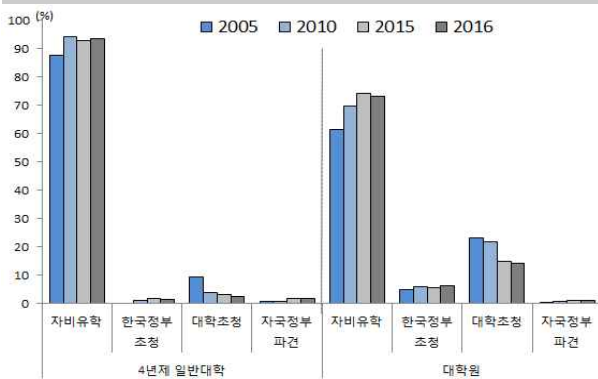
출신국가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비율,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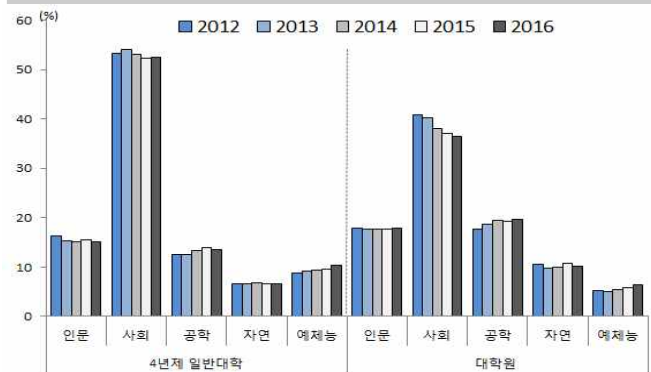
- 자비 유학생 비율이 2016년 4년제 대학 93.5%, 대학원 73.3%로 가장 많음
 - 대학 초청 비율은 2005년에 비해 대학 9.2%→2.4%, 대학원 23%→14.3%로 감소
 - 한국 정부 초청은 대학 0%→1.3%, 대학원 4.9%→6.1%로 꾸준히 증가
- 4년제 대학에서는 사회계열 전공이 2016년 5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계열 15.2%, 공학계열 13.6%, 예체능계열 10.4% 순임
 - 대학원 과정에서도 사회계열이 2016년 36.5%로 가장 높으나, 공학계열이 2013년부터 인문계열보다 많아졌으며 2012년 17.7%에서 2016년 19.6%로 계속 증가 추세임

유학형태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구성비율, 2005-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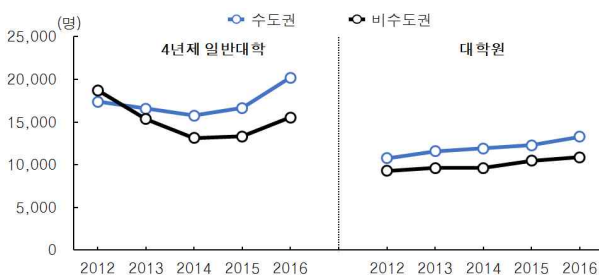
전공계열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구성비율,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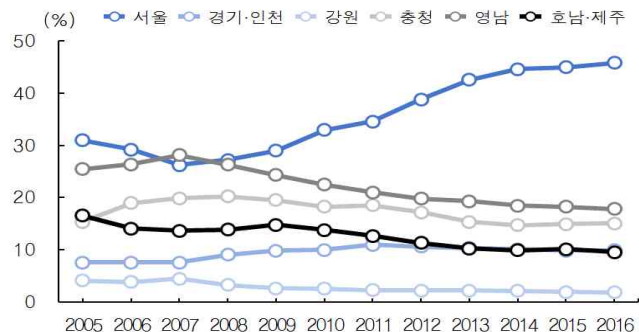
- 수도권에서 4년제 일반대학 유학생의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2016년 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 대학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2012년 1,496명에서 2,426명으로 증가
- 시도별로 보면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서 타 지역이 감소세나 정체세를 보이는데 반해 서울은 2005년 31%에서 2016년 45.8%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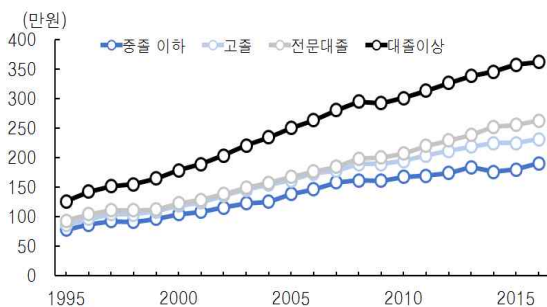
주: 1)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임.
 2) 충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을 포함, 영남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을 포함, 호남·제주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나. 대학교육의 성과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음

- 1995년에서 2016년까지 21년간 근로자 중 중졸 이하 및 고졸의 임금이 각각 144.0%, 168.8% 증가한데 비해 4년제 대학 이상의 임금은 186.3% 증가함
- 취업률은 2015년 의약계열이 83.2%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공학계열로 71.3%, 이어 사회, 자연, 예체능, 인문계열 순이며 교육계열이 50.8%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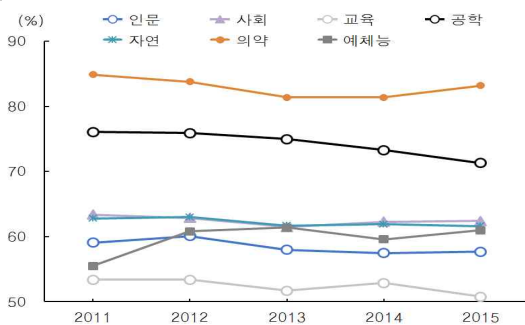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1995-2016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총사자를 표본으로 함.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이며,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취업률,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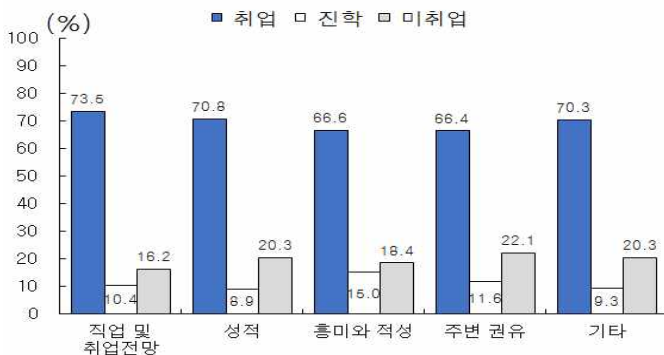
주: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 유학생 + 제외인정자))} × 100.

2) 2015년부터 취업통계조사가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2014년까지의 자료 또한 12월 31일 기준 취업률로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 대졸자의 취업률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73.5%)이 가장 높고 주변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66.4%)이 가장 낮음
-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월평균 227만원)이 가장 높고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집단(월평균 204만원)이 공학이나 의약계열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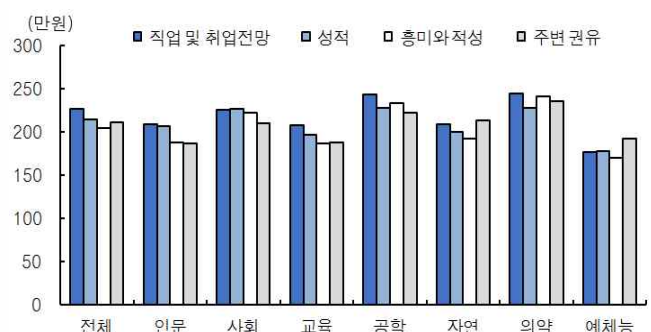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선택 사유별
취업상태, 2015



주: 1) 전공 선택 사유에서 '주변권유'는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에 해당함. '기타'는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에, 기타 등의 사유에 해당함.
2) 취업상태는 지난 4주간 주로 한 일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함. '취업'은 '일하였음', '일시휴직', '발령대기' 등 포함, '진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미취업'은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결혼준비', '쉬었음' 등을 포함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2015.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전공 선택 사유별
월평균 임금, 2015



주: 1) 전공 선택 사유 중 '주변 권유'는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에 해당함.
2) 월평균 임금은 세금,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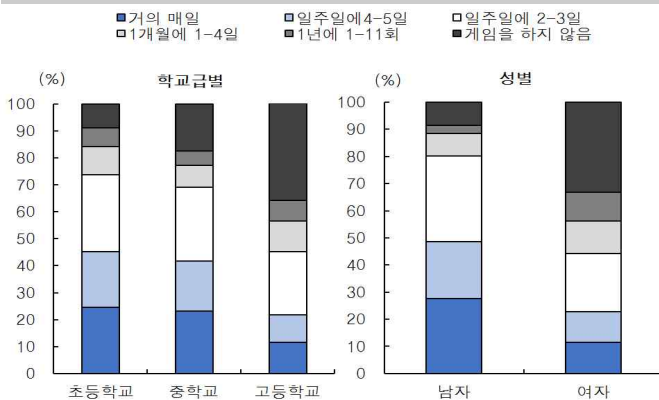
4. 문화와 여가

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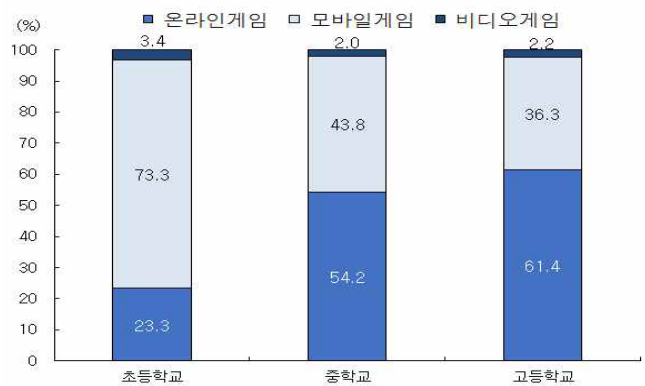
청소년 중 게임에 과몰입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게임을 일찍 시작한 중학생이 과몰입군이나 과몰입위험군에 속한 비율이 높음

- 초등학생(4~6학년)의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 성별로는 남학생의 91.4%와 여학생의 66.7%가 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음
-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바일게임을 많이 하고(초 73.3%, 중 43.8%, 고 36.3%) 학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게임을 많이 함(초 23.3%, 중 54.2%, 고 61.4%)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 게임 이용 빈도, 2016



청소년의 학교급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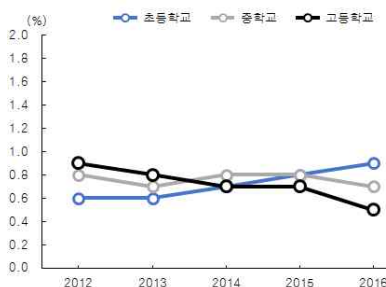


- 청소년 응답자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각각 0.7%와 1.8%임
- 과몰입군의 경우 초등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
- 과몰입위험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2년부터 증가 추세. 게임을 적당한 수준에서 이용하는 게임선용군은 초·중·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CSG)는 게임 이용자를 행동 유형에 따라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일반사용자군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함

청소년의 학교급별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및 게임선용군 비율, 2012-2016

1) 과몰입군



2) 과몰입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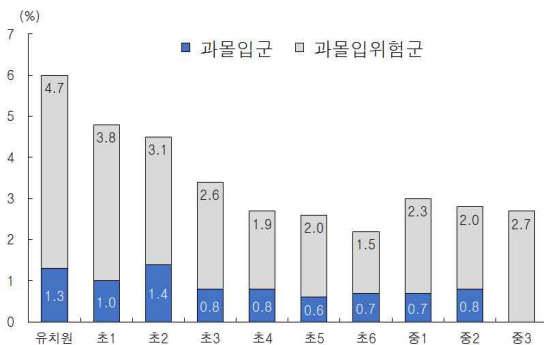
3) 게임선용군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3)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는 게임 이용자를 게임선용(생활 경험 확장, 여가선용, 자긍심·통제력 경험 등)과 문제적 게임이용(조절 손상, 일상생활 무시, 과도한 시간 소비, 금단 등)과 같은 행동유형에 따라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일반사용자군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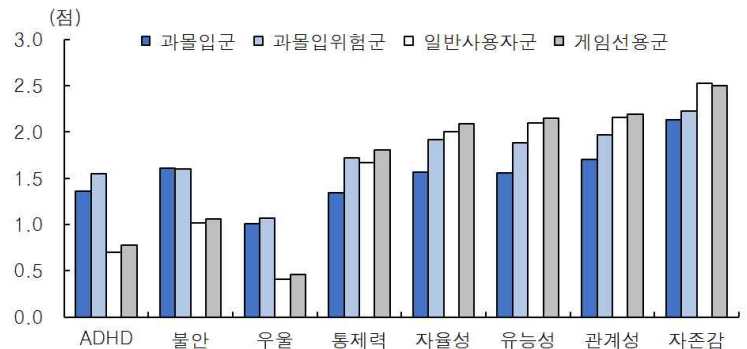
- 게임을 일찍 시작한 중학생일수록 과몰입군 또는 과몰입위험군에 속한 비율이 대체로 높음
-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 청소년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 우울감 수준이 게임선용군과 일반사용자군 청소년보다 높은 반면 통제력,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존감 수준은 이들보다 낮음

중학생의 게임 시작시기별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 2016



주: 1) 전국 중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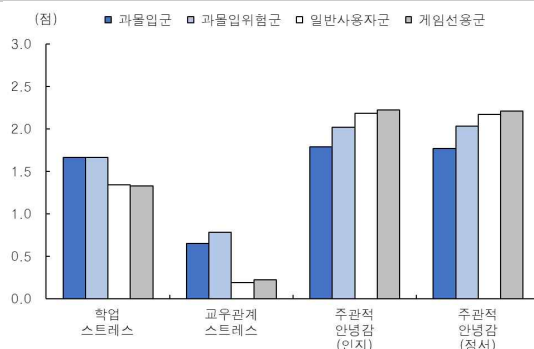


주: 1)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수준은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에도 주변의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란 진술에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2) 불안 수준은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3) 우울 수준은 '나는 항상 슬프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4) 통제력 수준은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남들이 포기한 후에도 참고 오래 일을 계속한다'
5) 자율성 수준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유능성 수준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
7) 관계성 수준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란 진술
8) 자존감 수준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 청소년은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게임선용군과 일반사용자군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음.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게임선용군과 일반사용자군 청소년에 비해 낮음
-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소통이 적고 담임교사로부터의 지지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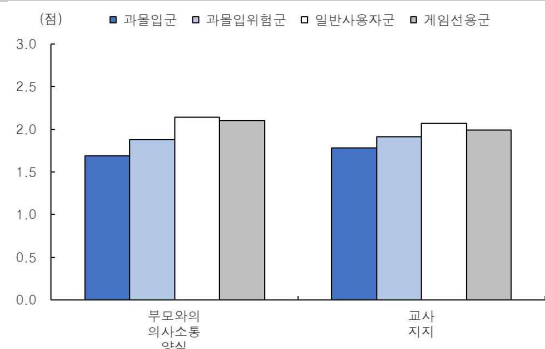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2016



주: 1)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나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란 진술에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2) 교우관계 스트레스 수준은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3) 주관적 안녕감(인지) 수준은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주관적 안녕감(정서) 수준은 '현재 나의 삶은 전체적으로 즐겁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 2016



주: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 나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2) 교사지지 수준은 '나의 담임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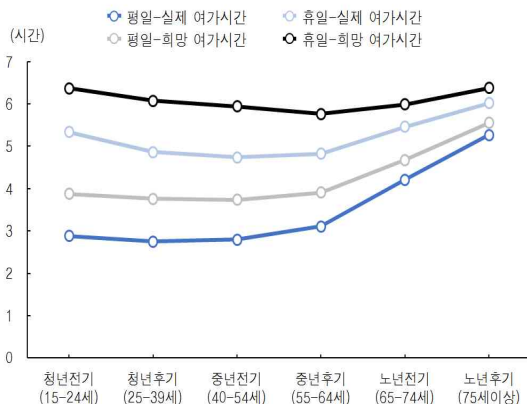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나. 생애주기별 여가

여가 불만족 사유는 젊은 세대일수록 시간 부족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경제적 부담, 여가 경험이나 정보 부족, 동반자 부재 등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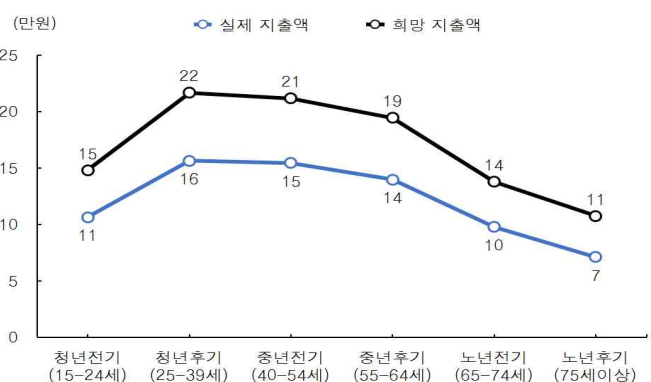
- 청년층과 중년층 모두 평일에는 약 3시간, 휴일에는 약 5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가지며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실제 여가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더 많음
 - 노년층의 여가시간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고 희망 여가시간이 실제와 유사함
- 청년후기에 한 달 약 1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여가비용을 지출하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여가비용이 감소함
 - 희망 여가비용은 실제 여가비용보다 약 5만 원 정도 많음

생애주기별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 2016



주: 1)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얼마인지를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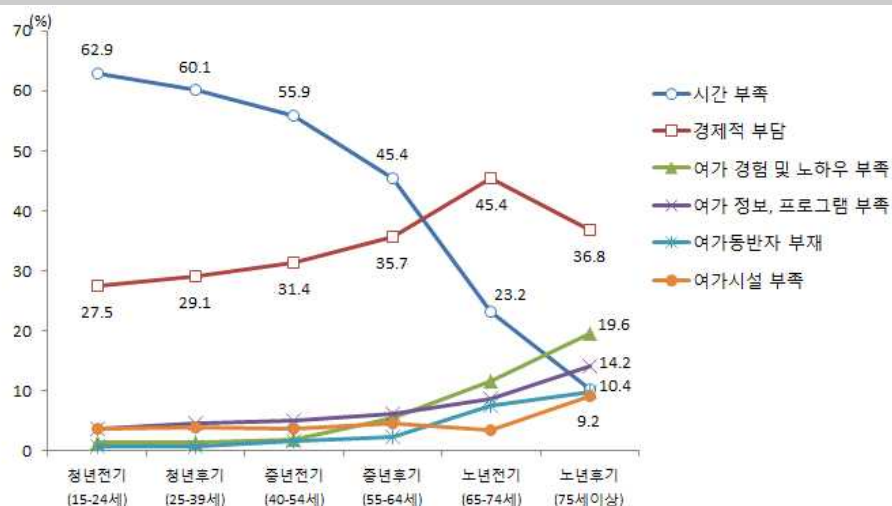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여가활동비 실제 지출액과 희망 지출액, 2016



주: 1) 지난 1년 동안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지출한 비용임.
2) 희망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달 평균 여가비용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 여가 불만족 사유는 젊은 세대일수록 시간 부족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경제적 부담, 여가 경험이나 정보 부족, 동반자 부재 등의 비율이 높음

생애주기별 여가 불만 이유, 201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 용역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연구 총괄책임: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영역별 집필자

| 영역 | 집필자 |
|--------|---|
| 인구 | 김두섭(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김근태(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유정균(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
| 가족과 가구 |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 건강 |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동천(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교육 |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문화와 여가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전인식(한국교육개발원) |